

장원덕(법무법인 부산 사무국장¹⁾) 1차 구술

1. 구술자: 장원덕
2. 면담자: 박보영
3. 촬영자: 권용협
4. 구술일자: 2011년 7월 21일
5. 구술장소: 부산 연제구 소재 음식점
6. 구술분량: 06분 12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개업 초기 노무현 변호사 사무실 이야기

구술자 : 그러다보니까 변호사로서는 당당하게 나가다가 항상 판사들하고 검사하고 좀 부드럽게 하면 될 텐데(될 건데). 평소 때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아주 부처님같이 부드러운데. 뭔가 상식에 어긋나면 갑자기 그 불같은 성격이 그대로 튀어나와 가지고. ‘아니잖소’, 하는 식으로. 그 시절엔 변호사가 어데 판사한테 고개도 못 들 텐데 당당하니까 마 입보일 정도라고

면담자 :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다면

구술자 : 하나가 있지요. 폭행사건인데 정당방위로 인해 무죄주장을 할 텐데, 무죄주장을 하는데 판사가 바로 하는 말이 피고인 보고 ‘어머니 여 앞에, 부모 나와 있어요?’ 이러는 거라. ‘네, 저 나왔습니다.’ ‘부모님 일어나 보세요.’ 딱 일났다(일어났다). 폭행사건에 있어서 ‘피해자하고 합의를, 변호사 살 돈 있으면 합의를 보지’ 이랬쁜는 거야. 그러면 이 사건 자체가 그냥 집행유예 권(권)수 같으면 그 말도, 변호사가 무안당해도 당연한데. 무죄를 주장했는데 ‘변호사 살 돈 있으면 합의를 보지’ 했다면 벌써 판결이 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그 순간에 노 대통령은 딱, 한 거지, 순간에. 저 성격에서는. 이게 벌써 판결이 난 거라 말입니다. 그러자 기록, 자기 형사기록을 그 자리에서 던지면서 ‘당신 그럴 수 있어’ 딱 던지고 튀어나 온 기예요(나와 버린 거예요).

그라고서 아 자기가 사무실로 바로 안가고 변호사회관으로 가셨어요. 변호사협회, 변호사들 모인 단체. 가가지고 마 변호사한테 울분을 토한 거야. 한 시간쯤 되니까 변호사회에서, 고참 변호사가 그 판사하고 동긴 가봐. 전화를 한 것 같애, 예측컨대. ‘야, 이래가지고 변호사협회에 뭔가

1) 2011년 7월 구술 당시 현직

이사회를 열어서 뭔가 할 것 같다. 이래니까 사과해라' 이랬겠지. 계장을 보냈는 기라. 기록을 들고 딱 왔더라구. 노 변호사님이 처음 정중하게, 딱 칠 땐 정중해. '아 오셨어요?' 처음에는 '저, 기록을 가져 왔는데요.' 딱 하는 말이 '당신이 왜 기록을 가져오는데? 장 부장 기록 받아', '예, 저 판사님께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됐어요, 판사가 직접 와 사과하라 하세요. 나 이의 제기할 꺼요. 이의 제기해가지고 문제 삼을 거예요. 가시오' 그랬더니 계장이 인자 돌아간 거요. 고대로(그대로) 이야기했겠지. 다음에 인자 형사과장이 오는 거야. '아 그게 아니고 참', '당신은 뭔데 왜 왔어요?', '제가 형사과장이인데', '그래 알아요. 내 모멸당한 거, 판사가 판결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한 거잖아요? 판사 오라 하세요.' 그래 또 과장 돌아갔었어요. 그랬더라는 판사가 그 변호사협회 간부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일로 해가지고 사과한 거로 받아들이자 해가지고 거 와가지고 변호사가 받아들여줬거든요. 그만큼 자기가 정당할 때는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그 시절 보면은 변호사 기사들이 아까 말한 대로 한 삼사십(30~40)명인데. 기사들은 할 일이 없어요. 변호사들이 현장 검증하자 하면 가고. 출근하면 그것밖에 없는데. 노 변호사께서는 자리를 하나 타악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법원하고 검찰청에 잔심부름 하는 거를 갖다가 시켜야 된다' 라고 할 때, 그때 변호사 사무실에, 한 사무실에 신분증이 두 개인가 세 개 이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나 더 받으면 될 거 아니가?' '네 알았습니다.' 그래가 하나 더 받아가 그 친구는 법원에 딱 가방 들고 착 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했겠어요. 그리고 딱 더욱더 인간적인 거는 뭐냐면 저녁에 우리가 밥을 먹으로 간다던지, 밥 먹을 때는 다 같이 그래 가는데. 그런데 그 시절에는 변호사가 밥 먹으로 나가면 기사들은 밤 열두시까지든 뭐까지든 대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 시절에는. 왜. 전부터 변호사들이 대부분 다 판검사 출신이니까 하두 몸에 권위주의가 배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사들은 낮에 만나며는 '오늘은 마 열두시 집에 갔다, 열한시에 집에 갔다' 저끼리 다 말할 때 아납니까? 만나가지고 오만 변호사 욱하고 그럴 땐데 우리 노 변호사는 식사하러 딱 가면, 같이 저녁에 가면 음식도 팔고 이런 데 있었어요. 그런데 가도 거는(거기는) 사무직원들과 변호사만 가는데 기사를 대동, 기사도 들어오라고 한다고.

그래 그 애들은, 기사가 이제 소문 나가지고 그 뒤에 문 변호사님(문재인

변호사) 오셔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행해가지고 세월이 짝 해가지고 짝 파급이 돼가지고 이자(이제) 기사들도 짝 이렇게 된 거예요(처우가 달라진 거예요). 노 변호사 딱 하고 소문 좀 나고. 봉급도, 보너스도 많이 주고 우리는. 그때는 추석, 설날 되면 조금 조금 주는데 노 변호사님, 문 변호사님은 바로 사백(400)프론가 해줬다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또 존경스럽고 조금도 숨겨서는 안 되고 더욱더 일 열심히 하고 의기양양하게 그 앞에서 당당하게 했지.

■ 구술자 주요이력

1948. 부산 출생

1978. 변호사노무현법률사무소 입사

1995. - 법무법인 부산 사무국장(2012년 현재)

대전지법 판사직을 정리하고 1978년 6월 부산에서 개업한 날부터 노무현 변호사와 함께했다. 초기 변호사 시절부터 이후 변모과정을 가까이서 접했다. 1982년 노무현 문재인 합동법률사무소를 거쳐 1995년 법무법인 부산으로 법인체제가 정착된 후 사무국장을 맡아 2012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